

오늘 이산상봉 최종 명단 교환·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관계 순풍

남북, 상봉가능 南 117명·北 127명중 100명씩 선정

남북 적십자가 지난 13일 오전 관문점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가족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다. 남북은 16일 오전 각 100명씩,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한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북측이 남측 상봉 후보자 250명 가운데 167명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 결과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나머지 83명의 가족은 생사확인이 불가능했다.

167명 가운데 38명은 가족이 모두 사망했고, 12명은 가족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봉

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상봉 가능자 117명 중에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3명에 불과해 이산가족의 고통 현실을 드러냈다.

북측의 가족이 형제·자매인 경우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촌 이상의 친척이 41명, 자녀 12명, 배우자 3명, 손주 3명 순이었다.

상봉 가능자의 연령은 80~89세 56명, 90세 이상 36명, 70~79세 18명, 69세 이하 7명으로 70세 이상이 94%를 차지했다. 최고

령자는 김성윤(95·여), 민재각(95)씨다.

남측은 이날 북측 상봉 후보자 200명 중 149명의 남측 가족 생사가 확인됐다고 북측에 전달했다. 149명 가운데 상봉 가능자는 127명이다.

한적은 북측이 보낸 생사확인 결과를 남측 상봉 후보자들에게 우편으로 알리고, 직계가족 우선 원칙에 따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남북은 오는 16일 오전 각 100명씩,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을 교환한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달 25~3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166일만에 ... 입주기업 123곳중 50~60% 가동

개성공단이 16일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입주기업 123곳 중에 50~60% 정도가 첫날 재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기반시설 점검팀과 관리인력을 체류시켜 재가동을 위한 막바지 인프라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전력 공급을 송전방식으로 전환해 전력 공급량을 10만kW로 확대했다.

우리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체류도 재가동

첫날 시작된다. 우리측 인원 총 820명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으로 귀환 예정 인원(377명)을 제외한 나머지 400여명이 개성공단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근로자들 상당수도 정상 출근해 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남북 당국간 상시 통행 체계 개선 합의에 따라 이날 총 11차례의 출경(남→개성공단)과 10차례의 입경(개성공단→남)이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오전 2회, 오후 2회로 입출경 시간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개선된 출입경 관련 조치가 이날부터 적용된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별도로 남북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타결을 시도한다. 남북은 지난 13일 열린 분과위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 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 등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이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근하는 '법률조력권'을 요구해 왔다. 남북은 이미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 교환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북교류팀 관계자들이 최종 확인 작업 및 우편 발송 작업 등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 “北 원자로 끄는 상태”

“재가동은 재앙” 경고

북한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경고가 잇따랐다. 핵 능력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최근 중국이 드라이브를 거는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 아래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핵 인내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낙후된 기술에 의존한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이 끔찍한 인재(人災)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러시아 외교소식통은 12일(현지시각) 인테르팍스 통신에 아직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영변 원자로는 지난 세기인 195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형편없는 상태”라며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한반도에서 기술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은 중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북한이 북미대화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려고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따랐다.

연합뉴스

미·러 ‘시리아 화학무기 해법’ 합의

1주일내 공개→11월 국제사찰단 입국→내년 중순 해체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를 논의한 미국과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화학무기 해법의 ‘기본틀’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일주일 내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공개하고 11월까지 국제 사찰단을 입국시켜야 하며, 내년 중순까지 해체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시리아가 화학무기 해체를

거부할 때 내릴 제재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미국·러시아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개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여온 회담을 끝내고 14일 이처럼 발표했다.

다.

케리 장관은 “국제 사찰단은 늦어도 11월까지 시리아에 입국할 것”이라며 “내년 중순까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해체를 거부한다면 평화과외 행위에 대한 군사제재를 명시한 ‘유엔안정 7장’에 따라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011년부터 내전이 계속된 시리아에서는 지난달 21일 신경가스 공격이

벌어져 민간인 1400여 명(미국 추산)이 숨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안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국제통제하에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고 구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군사개입을 지지한 서방도 이날 합의안을 환영했으며 외교적 해법을 줄곧 강조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앞서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 중재안을 수용해 화학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서구의회의, 민간위탁업체 추경 전액 삭감

광주 서구의회가 ‘혈세낭비’ 논란을 일으킨 민간위탁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13일 전일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의원합의로 삭감 결정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 무 민간위탁 업체 관련 추가경정

예산 1억7000여만원을 분회회에서 최종 삭감·의결했다.

서구청은 지난 6일 서구의회 임시회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 무 민간위탁 관련 예산으로 연장근로수당 항목 8854만여원, 고용승계인건비 항목 8232만여원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필리핀서 한국인 또 피살

올들어 8번째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한국인 1명이 또다시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업가 김모(50)씨가 이날 새벽 3시(현지시간) 남부 민다나오 카가안데오르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도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필리핀 현지에서 피살된 한국인 수는 모두 8명으로 늘었다.

범인은 김 씨의 방안에 있던 금고에서 20만 페소(500만원)를 털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흉탄과 탄피가 발견됐다.

김 씨는 카가안데오르 지역에서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고품질을 노린 강도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에만 8명의 한국인이 피살된 바 있다.

연합뉴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광역시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만원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격:46억 채권매각: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모빌딩은 분양 사무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평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전원링 방울쭈기 타로

010-5166-0013
신운공인중개사 010-2476-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천(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오양병원,관광동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품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수원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 광천터미널 사거리 대지 3,600㎡, 건물 1,700㎡ 보증금 28억, 월 1억3천5백만원, 매매가 180억.

토지 매매

- 북구 용두동 전답 5,700㎡ 대로 접, 위치 좋음, 물류센터나 도시형아파트 부지 적합. 매매가 37억5천만원.
- 광산구 비야동 전 7,666㎡, 요양원, 공업사, 물류센터 적합 매매가 18억5천만원.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원동 수원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 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2억3천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